



[실무수습기-대한상사중재원]

## 국제상사중재, 꿈을 향한 또 하나의 주춧돌

- 전주해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지원

### I. 시작하며

비법학사로서 법학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 지 어느덧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얻은 것이 훨씬 많기에 감사함이 앞섭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법을 공부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였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면서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부시절 내내 탈북자 및 북한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을 계획하는데 골몰했었고 졸업 후 일을 하면서도 향후 일반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권유로 로스쿨을 생각하게 됐고 진학을 결심하게 됐지만 법학을 접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막연히 ‘변호사가 되어서 탈북자들을 돕고 통일 정책을 연구 해야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는 학업을 따라가는데 급급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거나 진로를 탐색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학교에

서 열리는 특강 등은 기존의 판검사나 로펌 변호사에 대한 강의 위주였기 때문에 이렇다 할 도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실무수습은 졸업 이후의 새로운 방향을 엿보게 해준 기회였습니다. 이번 후기를 통해 국제상사중재 분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II. 선발절차

### 1. 실무수습 선발절차 및 기간

5월 중순경 학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 따라 메일로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실무수습은 국제중재에 전반에 관한 교육과 함께 FDI Moot 대회에 앞서 대회를 미리 준비하는 사전교육 형식을 띄고 있었습니다. FDI Moot 대회는 매년 8월에 열리는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입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예선이 열리고 여기에 입상하는 팀은 10월 말에 미국 말리부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신청정보 및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 외에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는 없었습니다만 안내문에는 FDI Moot 대회 참가팀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60%) 및 공인영어시험성적(40%)을 선발기준으로 삼아 평가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FDI Moot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출전하는 국제중재법학회원들과 함께 지원하게 됐습니다. 실무수습 참가 인원 30명 가량 중 FDI Moot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대략 70% 정도였고 학교별 배정 인원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한양대의 경우 저를 포함해 4명이 실무수습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수습은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주로 삼성역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되었고 2주차에 이틀간 열린 모의중재대회는 종로에 위치한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 2. 실무수습 사전준비

국제상사중재 및 투자중재는 기본적인 외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



문에 외국어가 부담스러울 경우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중재사건은 영어로 진행되고 한국 기업 간의 중재도 외국의 중재사례를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여타 법조인들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어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 중재법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꼭 영어 실력과 중재실력이 비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재법은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지만 수습에 앞서 미리 준비할 것은 따로 없었고 대신 첫째 주 교육의 대부분을 중재법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듣는데 보냈습니다. 실제 강의에서 강의를 맡으신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따로 내용에 대한 숙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Ⅲ. 실무수습 내용

#### 1. 중재절차 일반 및 투자중재 관련 강의 (1~2일차)

상사중재원 실무수습의 강사 및 중재인은 상사중재원에 근무하시는 변호사 및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교수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로스쿨에서 중재법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과 더불어 로펌 중재팀에서 근무하는 실무진까지 한국에서 중재법에 관해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1주차에 이뤄진 총 10회의 강의 중 절반은 영어 강의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날, 정장 대신 가벼운 옷차림으로 삼성역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들어섰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이 끝나고 바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상사중재 개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상사중재는 기업 간에 계약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을 거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과 특히 기업 간의 국제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간, 혹은 기업과 국가 간의 투자계약서에는 분쟁이 발

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중재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국제거래일수록 중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제3국의 중재원을 선호하므로 각국의 중재원은 홍보를 통해 사건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체결되면서 중재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상사중재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상사중재와 투자중재의 비교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할 만한 것은 최근 기업 간 분쟁에 대한 중재인 상사중재와 더불어 기업-국가 간 투자계약에 관한 투자중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미 FTA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었던 ISD(Investor-State Dispute),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나 각국의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다수의 FTA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제소한 사건이 현재 진행중이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 2. 국제중재절차 및 판정사례 (3~5일차)

셋째 날부터 국제중재절차 및 판정사례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중재분야 전문가이신 연세대학교 김중기 교수님과 서울대 이재민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아 주셨는데 이미 정평이 나있는 강의력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국제중재절차는 우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 중재 조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중재기관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중재위원회는 각 당사자들의 변론을 들은 후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각 중재기관은 자체적인 중재법을 가지고 이를 준거법 삼아 판정을 내리게 되므로 변호인은 각국의 중재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국제관습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판정사례에 대한 강의는 대형 로펌 중재팀 소속의 현직 변호사님이 맡아주셨는데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중재법 논점을 증점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사례로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주셨는데 오래 전 뉴스에서 접한 사건을 법리적으로 접근해보니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 3. 국제투자중재 서면작성 및 변론기술 (6~7일차)

첫째 주의 이론교육에 이어 둘째 주에는 실제 중재사건에서 사용되는 서면작성 및 변론기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중재사건은 영어로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미국 변호사님과 영국 변호사님이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간단한 이론 강의에 이어 그룹별로 간단한 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중재법을 주제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직접 해보고 나니 이론적으로만 배우던 지식을 직접 활용해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4. 모의투자중재대회 (8~10일차)

상사중재원 실무수습의 마지막 과정은 모의투자중재대회였습니다. 실무수습 첫 날 4명 단위로 조가 편성됐고 문제가 공개됐습니다. 각 팀은 이론교육이 진행된 첫 날부터 문제를 읽고 변론을 준비하고 실제 FDI Moot 대회와 같은 형식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8일차에는 각 팀이 리허설을 해보고 9일차에 예선전을, 마지막 날에는 4강 진출팀이 토너먼트를 벌여 우승팀을 가리는 형식이었습니다. 작년 FDI Moot 대회에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진행했으므로 FDI Moot 대회 홈페이지에서 작년 모범서면들을 열람할 수 있었고 유튜브에 대회영상까지 공개돼 있어서 처음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직접 투자중재 변론을 하는 것은 매우 고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직 변호사님들이 대회의 중재인으로 심사를 맡아 주셨기에 실제 중재사건에 임하는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모의투자중재대회는 각 팀이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 변호인단을 맡아 각각 20분씩(실제 대회는 30분씩) 관할과 본안을 나눠서 변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재인들은 전문가들답게 날카로운 질문으로 변호인단의 논리적인 허점을 짚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변론이 끝날 때마다 중재인들이 해 준 피드백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 팀은 경기가 거듭될수록 더 차분히 변론에 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후 법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한 경험이었기에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IV. 총 평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속 변호사들과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준 높은 강사진을 통해 국제상사중재 및 투자중재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이론 교육에 이어 발표 및 서면작성 등 실습 교육이 함께 이뤄졌고 참가 학생들로 구성된 팀별로 교육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실무수습의 마지막 순서로 열린 모의변론대회를 통해 실무수습 기간 내내 실제 중재사건을 준비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투자중재는 중재법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더불어 중재신청인의 주장을 중재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중재법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점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의변론대회를 통해 여러 로스쿨에서 참가하는 뛰어난 인재들과 경쟁해보는 흔치 않은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향후 국제중재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언어능력과 법적 사고를 더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수습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상사중재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도 다르고 2주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매일 함께 모의대회를 준비하면서 친해진 팀원들 덕분에 실무수습 기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힘든 그룹과제를 함께 하면서 서로 약속한 일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끊임 없이 서로를 격려해주는 팀워크 덕분에 모의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팀 외에도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각 학교의 뛰어난 인재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를 되돌아본 것 역시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 V. 마치며

개인적으로 로스쿨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좋은 학점과 좋은 직장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길만을 최선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문화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런 기준을 알게 모르게 따라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두 가는 길을 좇아갈 때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진정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무수습을 통해 나의 관심사와 졸업 후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것은 학교에서 학업에 충실한 것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발견함과 더불어 로스쿨에 처음 진학했을 때의 열정을 다시 기억하고 목표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곧 개강이 다가오고 꼭 짜인 학사일정에 돌입하게 되겠지만 이번 실무수습 덕분에 학업의 방향성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후기가 원우님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확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